

[제57회 평신도주일 강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선교하는 평신도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시다-

오늘은 선일곱 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널리 가 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빛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교의헌장』33항)

이에 따라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특히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 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2025년 우리가 생각하며 이행해야 할 세 가지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노드 정신으로 사도직의 소임을 수행합시다.

2021년 10월 10일에 개막된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이하 시노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친교, 선교, 참여를 주제로 한 이번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선교하는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직자·수도자·평신도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시노드 정기총회 2회기 개막미사에서 “개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하느님 시선에서 시노드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며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시노드 과정을 통해 모인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기도와 복음을 바탕으로 식별해 나가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본당과 교구와 보편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노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이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경청(傾聽)하였는지, 나아가 그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경청(敬聽)하였는

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1코린 4,11) 있는 이들, 가난과 소외와 억눌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하소연에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려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외면은 오늘 제2독서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상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시련과 고통을 도외시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사도직의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희년을 맞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봉헌합시다.

우리는 곧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12월 24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며 장엄하게 희년이 선포되고, 내년 12월 28일 폐막 미사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교회의 대축제인 희년은 모든 이들의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전통 관습에 따라 해방의 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5월 2025년 희년을 공식 선포하시고 희년 선포의 의미와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칙서에서의 “희망은 단순한 세속적 바람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을 **우리 구원의 문이신 주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희년을 지내는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병마와 싸우는 이들, 버림받은 노인들과 아이들,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시련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조금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기름을 다 사용하여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대접한 제1독서의 과부와 같은 마음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인 렘톤 두 닢을 하느님께 봉헌한 오늘 복음의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봉헌과 자선이야말로 “우리의 희망”(1티모 1,1)이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희년에 이러한 마음으로 희망의 순례길에 동참한다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평신도 사도이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써 희망을 전하는 징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의 삶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7년 8월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최하지만 종교와 국적과 이념을 넘어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만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대회도 10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두 한 형제와 같이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한 바를 나누며 화해의 장을 펼치며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지난 9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주제어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선정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을 위한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절실한 염원을 담은 이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30년 전인 1984년에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방한하여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에 대한 시성식이 거행되었고, 10년 전인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여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바라건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때 교황님이 방한하여 복자 124위에 대한 시성식이 거행되길 희망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같은 감동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전 교구 차원에서 복자들의 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복자들의 숨결을 찾아 사적지와 성지를 순례하여 그들의 삶과 순교영성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시성식을 통하여, K-팝이나 K-푸드 등과 같은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설립과 성장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K-가톨릭이 순교자 후손들의 타고르는 신심과 더불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소

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신도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이번 시노드의 알찬 결실과 다가올 희년의 자비로운 삶, 그리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삶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 속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평신도주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